



보도시점 2026. 2. 11.(수) 11:00 배포 2026. 2. 11.(수) 09:00
2. 12.(목) 조건

농촌 주민들의 든든한 발 '농촌형 교통모델', 연간 이용자 740만명 돌파

- 지원 마을('24: 9,206개소 → '25: 9,540) 및 이용자(698만명 → 741) 지속 확대
- 교통이용불편 해소 및 이동권 향상을 위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고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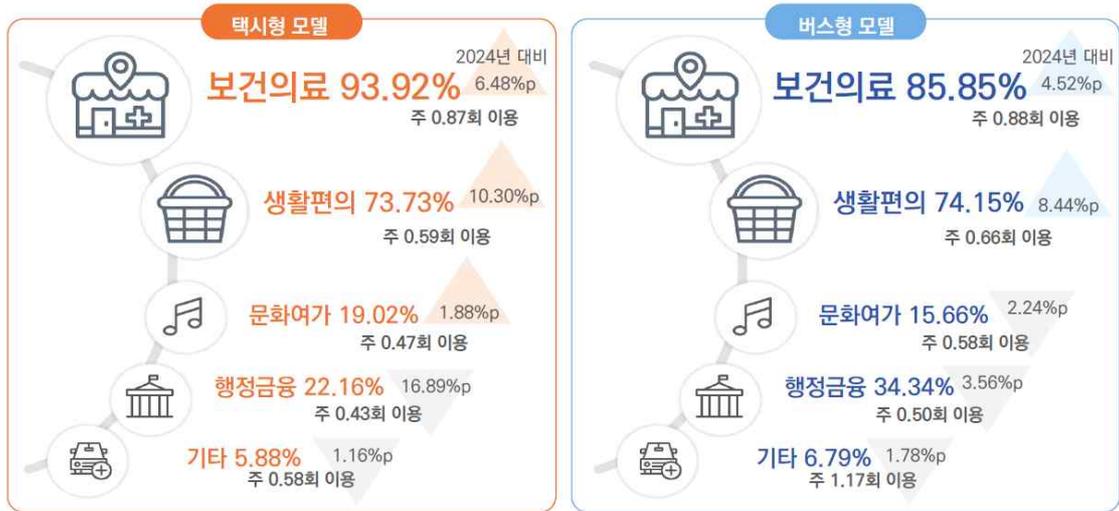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5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천원택시, 콜버스, 노선버스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원 중이다. 2025년에는 81개 군(택시형 78곳, 버스형 70곳)의 총 9,540개 마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총 741만 명이 이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 334개 마을, 4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이 농촌 지역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합 만족도 역시 8.8점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농촌형 교통모델 최근 5개년 추진실적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마을 수(개소)	7,361	7,983	8,374	9,206	9,540
이용자 수(천명)	5,772	6,546	6,780	6,984	7,407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형 이용자는 주로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교통모델을 이용하였고, 버스형은 보건·의료시설 외 장터, 마트, 관공서 등 여러 시설 방문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버스형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 콜버스 형태의 '수요응답형 버스'도 전년보다 증가한 17곳에서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운행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 동선과 수요에 맞춘 서비스 내실화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 농촌형 교통모델 유형별 주요 이용목적 및 횟수(복수 응답) >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봉화군의 ‘행복택시’는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요금을 면제하여 다인승 이용을 유도하여 효율을 높였다. 충남 청양군 ‘행복택시’는 지원마을을 88개 마을에서 101개 마을로, 가구당 이용 횟수를 월 4회에서 8회로 대폭 확대하여 일상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전북 순창군과 완주군은 노선버스와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를 유기적으로 병행 운영하여 농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완주군은 주요 거점 정류장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인근 중심지와와의 접근성을 높였다. 순창군은 노선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쿠폰제를 도입하여 주민부담을 줄였다. 특히, 순창군은 행복콜버스 수요가 집중될 때 택시를 함께 배차하여 주민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델을 정착시켜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형 교통모델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복지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촌의 교통서비스에도 AI를 활용하여 배차 및 경로 설계 등을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형교통모델 사업개요 및 현황
- 2. 농촌형교통모델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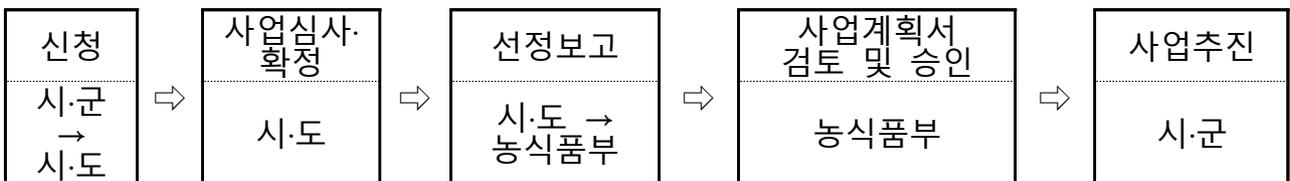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1-1552)

참고1

농촌형교통모델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목적)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체감복지 향상
- (사업내용) 전국 군(郡)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 (버스형) 차량구입 및 개조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
 - (택시형) 운행손실보상금 등
- (추진경과) 시범사업('14~'18)을 거쳐 전국 82개 군(郡)지역으로 확대 시행('18년~)
 - * 82개 군 지역은 농식품부(농촌형), 78개 시 지역은 국토부가 주관(도시형)
- (지원대상) 교통이 취약한 군지역(시 지역은 국토부 소관)
- (사업예산) '26년 57,982백만원(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국비 50%)
 - (지원금액) 군당 350백만원(버스형 300, 택시형 50)
 - * 광역지자체에서 시·군 간 예산 조정 등 자율 배분이 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추진실적) '25년 기준 81개 군* 지역에 532억원(국비 50%, 지특회계) 지원
 - * 울릉군 미추진, ** 예산 추이(국비, 억원) : ('22) 209 → ('23) 215 → ('24) 249 → ('25) 266
 - ('25년 성과) 지원마을 9,540개소, 이용자수 740만명, 만족도 8.8점
 - * '24년 성과: 지원마을 9,206개소, 이용자수 698만명, 만족도 8.7점

참고2

농촌형교통모델 우수사례

< 경북 봉화군 행복택시 >

구분	내용
운영횟수	• 마을별 월 50회
운영대수	• 59대
주요 경유지	• 해당마을↔읍면소재지
이용요금	• 1,500원(최소 2인 탑승원칙, 1인 탑승시 2인 요금 지불)
주 이용계층	• 벽오지 주민
마을 수	• 봉화군 10개 읍면, 103개 마을
가구/인구수	• 4,677가구/8,648명



< 충남 청양군 행복택시 >

구분	내용
운영횟수	• 세대별 월 8회
운영대수	• 56대
주요 경유지	• 읍면사무소 소재지 경유
이용요금	• 1인 1,000원
주 이용계층	• 벽오지 주민, 고령자
마을 수	• 청양군 10개 읍면, 101개 마을
가구/인구수	• 473가구/721명



< 전북 순창군 행복콜버스 >

구분	내용
운영방식	• 콜방식
운영대수	• 3대
주요 경유지	• 마을~면소재지
이용요금	• 1,000원
주 이용계층	• 벽오지 주민, 교통약자 등
마을 수	• 순창군 3개 읍면, 61개 마을
가구/인구수	• 1,892가구/3,196명



< 전북 완주군 행복콜버스 >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노선형, 콜제 병행
운영대수	• 10대
주요 경유지	• 마을~면소재지
이용요금	• 500원
주 이용계층	• 벽오지 주민, 고령자 등
마을 수	• 완주군 5개 읍면, 78개 마을
가구/인구수	• 15,906가구/31,313명

